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생산체계의 공간분화

이철우* · 박양춘** · 김은정***

The Restructuring of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ur on Production System in Daegu

Chul-Woo Lee* · Yang-Choon Park** · Eun Jung Kim***

요약 : 본 연구는 대구 섬유기업들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생산기술, 노동력 이용, 기업간 관계에서 어떤 유연성 전략들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대구 섬유업체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단일공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섬유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한 기업들조차도 외주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 설비하청중심에서 전문하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는 무역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제로 조직화한 결과이다.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정도는 기업규모와 외부화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주요어 : 재구조화, 유연화 전략, 생산체계, 공간분화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flexibility strategies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ur on production system i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of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in Daegu. Textile and apparel firms in Daegu have come to have power after holding trade function. In the context of existing variant production units across all the sectors of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individual firms that hold trade function can organize the lowest cost production system. Daeg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in Daegu shows the complicated and closely related production system through individual firm's flexibility strategies. Although the textile and apparel firms produce the same item or have the same size, they pursue different flexibility strategies and form different networked production system and different spatial division of labour.

Key Words : restructuring, flexibility strategy, production system, spatial division of labour

1. 서론

산업재구조화란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바꿈으로써 경쟁에 대응하거나 생산 및 분배를 재조직하는 일련의 방식을 의미한다 (Lovering, 1989). 이것은 한 산업이 세계적·국가적 환경변화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대응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그 산업의 역사 및 경제적 변화 즉, 정치적 인자와 역사적·경제적 인자가 상호작용하여 그 산업의 유연화 전략이 나타남으로써 진행된다. 그리고 한 산업의 유연화 전략은 그 산업의 공간을 재구조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정치적·역사적·경제적 인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보다 하위수준의 지역에 적용된다면, 세계적·국가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내 산업의 경제적 변화 및 그 지역 고유의 맥락적 환경,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변화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연화 전략이 특징지워진다. 생산기술·노동력이용·기업간 관계의 유연화 전략은 공간이용의 유연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지역내 특정 산업의 공간구조를 재구조화시키는 한편 그 산업의 정치적·역사적·경제적 인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Ph.D.,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재구조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방법론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기술체제와 작업조직이 포드주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이 이론들은 흔히 포스트 포드주의 이론으로 불리운다(이영희, 1994; Amin, 1994). 그 중에서도 조절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이행 즉, 자본주의 재구조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꼽히고 있다(조명래, 1992). 조절이론은 Dunford와 Perrons에 의해 처음으로 공간연구에 도입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Lipietz, Leborgne, Scott, Storper, Schoenberger, Harvey 등에 의한 공간연구에 활발하게 도입되었다(강현수, 1995). 국내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있어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의 이행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1990년대 들어 많이 나타났다(김덕현, 1992; 김왕배, 1992; 고태경, 1992; 조명래, 1992; 초의수, 1993; 최병두, 1994). 이들의 연구는 조절이론의 관점을 도입하여 국내경제가 포드주의에서 새로운 축적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논하고 그것이 공간 또는 국가범위내에서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재구조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철우 외, 1999).

Harvey(1990)는 포드주의에서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이행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유연적 축적체제의 대표적인 공간구조의 특성으로서 공간적 이동성을 들고 있다. 이 특성은 보다 낮은 추상수준 즉, 중범위적 수준에서 특정공간이 재구조화 유형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한 Massey(1984)에 의해서도 보인다. 특정 장소에서 경제재구조화와 사회적·문화적 변화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려 한 Massey의 연구는 또한 일련의 로컬리티 연구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이동성의 특성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유연적 축적체제의 공간구조의 또 한 가지 특성은 공간집중 경향이다. 포스트 포드주의의 공간재구조화는 포디즘적 생산관계가 해체되는 공간 위에 새로운 유연적 노동 및 생산과정을 축으로 다양한 생산-유통의 네트워크가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가는 공간과정 즉, 유연적 축적체제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술산업 부문에 관

련된 유연적 생산관계가 집중적으로 실험되는 신산업공간의 등장을 보여준다(조명래, 1992). 유연성의 경향을 가지는 산업재구조화로 기업들의 지리적 집중을 설명하는 신산업지구나 네트워크 생산체제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Scott, 1988; Harrison, 1994; Malecki and Tootle, 1996; Park, 1993·1994; 박삼옥, 1994; Cho, 1997).

특정 산업의 재구조화가 국가 또는 지역규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연성의 한 부분(기술, 기업간 관계, 노동 등) 또는 여러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로는 기업들의 유연화 전략에 따른 공간연구(Dicken, 1998; Healey and Ilbery, 1990; Hardill, 1990; 김선배, 1988; 이정협, 1993; 한상진, 1994)와 여기에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강현수, 1995), 그리고 지역 내적·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맥락에서 한 지역의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경향을 설명한 연구(이철우 외, 1999)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신국제노동분업 하에서 저임금의 경쟁우위를 이용하여 섬유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한국 섬유산업 내에서도 화학섬유 제품의 대량생산, 대량수출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대구 섬유산업은 세계 섬유산업의 수요 및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의 후발개도국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 섬유제품을 대량생산, 대량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해외수출시장이 대거 잠식되었고 선진국의 수입규제 또한 강화되었다. 국가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최저임금제의 실시, 1990년대의 섬유생산 노동력의 부족현상으로 저임금 경쟁우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섬유산업을 둘러싼 세계적·국가적인 환경변화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섬유기업들이 위기에 대응하여 생산기술, 노동력, 기업간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유연성 전략들을 행하였고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재조직되었는가를 개별 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사례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 섬유개발 연구원의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구 섬유산업의 현황, 개별업체 현황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의 상황 등을 기초로, 사례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 8월 2일 지역 섬유산업의 생산체계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개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자 인터뷰와 생산공장을 견학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사생산에서 무역기능까지 전공정을 통합하고 있는 1개 기업, 준비공정에서 무역기능까지 통합하고 있는 2개 기업, 염색가공 공정을 제외하고 준비공정에서 무역기능까지 통합하고 있는 4개 기업, 한 부문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4개 기업(염색가공 부문: 2개 기업, 제직 부문: 1개 기업, 무역부문: 1개 기업) 등 총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1999년 8월 2일~1999년 9월 5일에 걸쳐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체계

대구의 섬유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화섬직물을 제직하여 전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염색가공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직회사에서 출발하여 판매 즉, 무역기능을 갖추게 되는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다. 무역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생산보다는 판매(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구 섬유산업에서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사 생산업체 또한 파워를 가질 수 있으나 원사생산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부문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대부분의 대구 섬유회사들은 무역기능 보유쪽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의 섬유업체들이 자체 디자인에 의해서 직물을 생산하여 판매(수출)하는 것보다는 해외 바이어(또는 원청업체)의 주문 생산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업체들은 원사생산, 직물생산, 염색, 무역기능의 통합여부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원사생산, 준비공정, 제직(편직), 염색가공, 무역기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극소수이다. 둘째는 첫째 유형에서 원사생산 기능이 결여된 기업으로서 역시 소수이다. 셋째는

원사생산 기능과 염색가공 기능을 갖지 않는 기업들로 대구지역의 중견 섬유기업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넷째는 한 부문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들은 다시 무역회사, 염색가공회사, 준비공정 또는 제직기능만 가지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무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섬유제품 생산공정별로 이 업체가 필요로 하는 하청회사들을 선택하여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준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단일기능 기업들보다는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직기능이나 준비공정기능만 가지는 업체들은 별다른 기술없이 2~3명의 노동자들이 15대 정도의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을 행하고 있어 이 부문으로의 신규 진입이 가장 용이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복잡한 대구 섬유산업관련 기업들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섬유관련 업종 회사들(포장회사, 화물회사, 통신회사 등)도 각 계층의 기업들과 사회적 분업체계를 이루어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체계를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체계를 단순화시키면 그림 1과 같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원사생산에서 무역기능까지 모두 갖춘 기업들에서부터 단지 한 부문(염색부문, 제직이나 준비공정 부문)의 기능만을 가지는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많은 수의 기업들이 중층적으로 존립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주체는 주로 제직을 겸하고 있는 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제품을 자체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외주를 통한 생산을 하게 된다. 대구 섬유산업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갖춘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외주생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설비하청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다품종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준비공정²⁾ 및 염색가공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하청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제직부문은 전문하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대구의 제직업체들은 특별한 기술없이 기계에 의존하여 표준화된 동일종류(폴리에스테일)의 원단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색가공 및 포장부문도 설립 초기부터 외주화시킨 기업, 처음에는 내부화시켰다가 1990년대 후

반들어서 외부화시킨 기업, 여전히 내부화시키고 있는 기업 등 여러 가지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

한편, 무역기능을 가진 업체의 입지는 기업의 규모, 직접수출 지향인가 간접수출 지향인가에 따라 서울과 대구(도심)로 양분된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이 대량생산, 대량수출을 지향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무역기능은 서울에, 생산기능은 대구에 입지하는 노동의 공간분업구조로 대변된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복잡한 네트워크 생산체계에서 개개의 하청업체 기업들이 단일 원청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원청회사들과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수평적 하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가 최근들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며 대량생산, 대량수출 시기인 1970년대에 이미 그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무역기능을 가진 섬유기업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1980년대 중반

어서 전문화청은 거의 없었으며 오늘날처럼 다양한 부문의 많은 생산단위들이 생겨나지도 않았으므로 1970~1980년대 전반에는 보다 소수의 대기업 무역상사나 무역기능을 가진 업체들에 대한 종속의 정도가 높았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에는 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다 많은 섬유회사들과 많은 염색가공 및 제직업체들이 종속보다는 보다 더 느슨한 관계맺음을 통하여 훨씬 더 복잡한 생산체계가 이루어졌다.

3. 기업 유형별 생산체계와 공간분화

유연화 전략에서 유연화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작업장내에서 기계 및 노동력의 이용 측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양상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노동관계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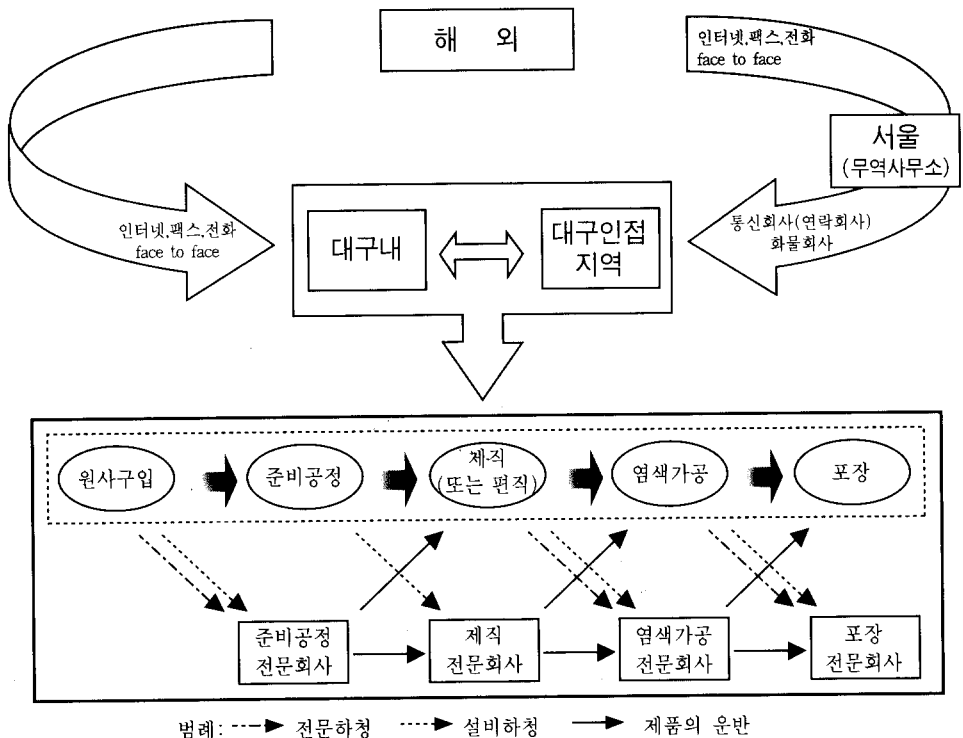


그림 1.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체계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현시기 자본주의의 구조적·질적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강현수, 1995).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유연화에 관한 유형구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산기술의 유연화, 노동력이용의 유연화, 기업간관계의 유연화, 공간이용의 유연화³⁾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생산체계상의 기업유형은 유연화 전략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간 관계의 유연화를 기초로 크게 3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전문하청과 설비하청을 모두 이용하는 기업으로서 담당공정의 통합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1유형에 속하는 기업들은 무역기능과 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A, B, D, E사가 여기에 속한다. 제2유형은 전문하청만 이용하는 기업으로서 K사(무역기능만 보유함)를 제외하고는 무역기능과 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K, F, G사가 여기에 속한다. 제3유형은 생산의 외부화가 전혀 없는 기업으로서 C사를 제외하면 모두 생산기능만 보유하고 있는데 C, H, I, J사가 여기에 속한다.

1) 제1 유형

(1) A사(원사+준비+제작+염색+무역)

A사는 검단공단에 본사 및 본공장이 위치하며 현재 8개의 계열사까지 모두 합하여 종업원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1953년 제직부문

에 진입하여, 1976년 무역, 1980년 염색, 1984년 자수, 1990년 원사 부문을 통합하여 원사생산에서 무역까지 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에서는 신기계 도입⁴⁾과 사무자동화를 추구하였고 신소재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위한 팀을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무자동화는 1980년대 말에 시작하여 1993~1994년에 걸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 디자인 부문에서는 1997년부터 CAD작업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다양한 해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대량생산, 대량수출체제를 지향하면서도 유연적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노동력이용의 유연화에 있어서는 수량적 유연화만이 약간 나타나는데, 1997년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던 구식설비를 폐기하고 보다 최신의 TFO 연사기를 도입하여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력들에 있어서는 1980년대에는 미혼여성이, 1990년대부터는 기혼여성 노동력이 월등히 증가하여 1999년 현재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비가 2:8정도이다. 그 외에 시간제 노동자나 해외노동자를 이용하지는 않았다.⁵⁾

그리고 1970년대부터 외주생산을 시작하였고 당시는 설비하청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전문하청도 이용하기 시작했다. A사의 생산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인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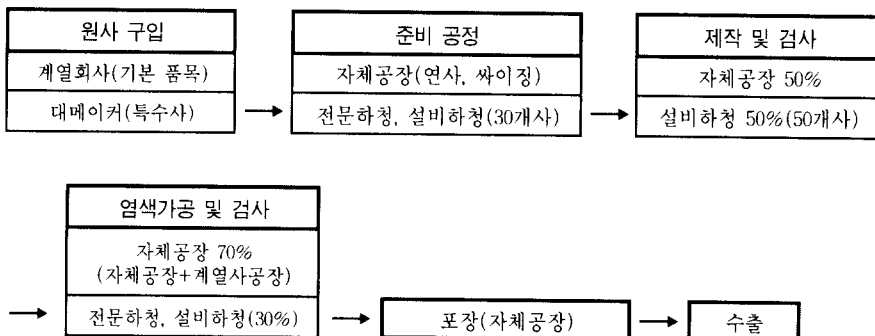


그림 2. A사의 생산체계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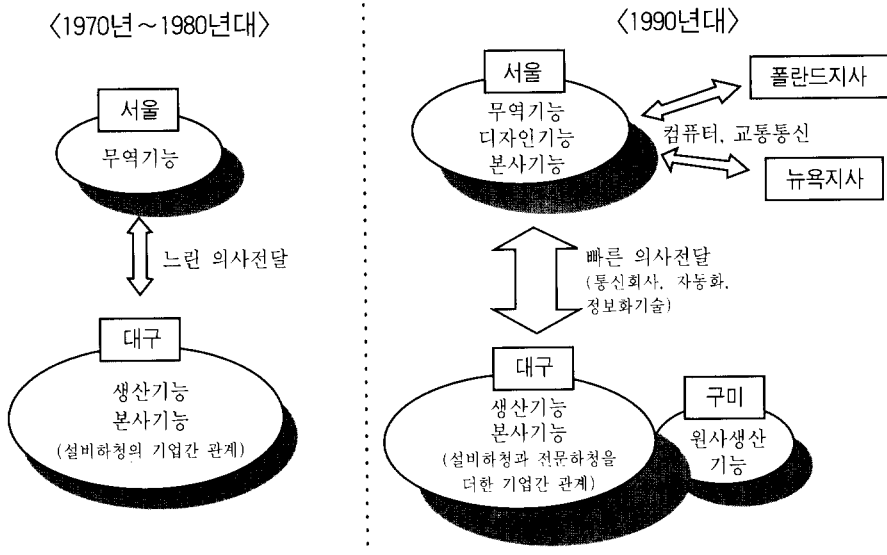


그림 3. A사 생산체계의 공간분화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공정과 염색가공 부문에서 전문하청을, 준비공정·제직·염색가공부문에서 설비하청을 이용하고 있다. 제직공정 중에서는 통경⁶⁾공정을 외부화하였다. 준비공정과 염색가공부문은 전문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A사의 공간이용 전략을 보면 생산공간의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판매공간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여 왔다. 1994년에 바르샤바에 폴란드지사와 뉴욕지사를 설립한 반면 홍콩지사를 1997년에 철수하는 등 판매공간의 세계화 전략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에 있어서는 1976년 무역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대구는 본사 및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서울은 무역기능을 담당하는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에 원사생산을 위한 계열사를 구미에 설립함으로써 생산공정 중에서도 원사생산은 구미로, 디자인 부문(나염디자인 부문)의 기능은 다시 서울로 이전하였다(그림 3).

서울의 무역 및 디자인기능과 대구의 생산 및 본사기능의 신속하고 원활한 네트워크화를 위해 당일내로 대구 섬유회사의 제품샘플이나 서류들을 배달해주는 연락회사⁷⁾를 이용하고 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산판매 회의를 하는데 있어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대구에서 행함으로써 생산과 무역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보획득에 있어서 직물디자인이나 신소재의 정보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얻거나 또는 직원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전시회 등을 통하여 입수하고 있다.

(2) B사(준비+제직+염색+자수+무역)

B사는 1950년 자수와 견직물을 생산하는 개인회사로 설립되어 1979년까지 준비공정에서 제직, 염색, 무역기능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였다. 이 기업은 1950~1980년대까지 대구의 선도기업 역할을 했으나(1980년대 종업원수가 1,700~1,800명에 달하였음), 1990년대부터 그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1990년대 후반에는 종업원수가 350명까지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1950~1970년대 전반까지는 내수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재 전적으로 해외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기능은 서울의 계열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본사 및 생산기능은 대구에, 무역기능은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에서는 1987년까지 셔틀

체인지 직기를 사용하다가 1988년 워트제트룸 직기 60대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워트제트룸 직기만 204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동화 및 정보화 전략에 있어서는 1996년부터 사무직, 현장관리직 직원들에게 1인 1 PC 갖기 추진,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ing planning)와 전자 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실시²⁾, 염색가공부문의 공정제어,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동력이용의 유연화 전략에 있어서도 1980년대 1,700~1,800명에서 1990년대 후반에 350명으로 크게 감축되었다. 이는 신기계의 도입과 생산규모의 축소의 결과이다. 1980년대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체 부설학교를 운영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더 이상 지원자들이 없어 폐쇄하고 현재는 기혼여성 노동력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기업조직에 있어서 1996~1997년에 걸쳐 염색가공 부문의 봉침공정과 포장부문에서 소사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장부문은 1996~1997년까지는 원·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원·부자재 구매까지 소사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1998년 7월부터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한시적인 팀제를 도입하여 공정개선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외주생산에 있어서는 1980년대까지는 제직부문의 설비하청만을 이용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준비공정의 전문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직부문에서 설비하청은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인 폴리에스텔 교직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염색부문에 있어서는 하청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준비공정 및 제직부문에서는 원청기업의, 염색부문에서는 하청업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그림 4).

이 기업은 이상의 기능 외에 자수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공정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직포를 녹이는 공정과 자수천에 금구슬, 은구슬을 부착하는 공정은 외부화하고 있다.

(3) D사(준비+제직+무역)

D사는 1982년 제일합섬에서 근무하던 현재 경영자가 분리창업한 순수 폴리에스텔 원단 하청업체로 1990년대 중반까지 제직, 준비, 무역기능을 통합하였다.

1980년대는 셔틀체인지 직기를 사용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워트제트룸(70%)과 래피어직기(30%)로 완전교체하여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95년 직물디자인 및 신소재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도 소수이고(5명 미만) 선진제품의 모방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순수 폴리에스텔 원단을 대량수출하는 이 회사는 염색가공 부문과 포장부문을 처음부터 외부화하였다. 그리고 1995년 무역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였으나, 6개월만에 폐쇄하고 대구의 도심으로 이전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와 인근지역에서 무역 및 생산 기능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도심의 사무소에서는 무역 및 본사기능을, 반야월 공장에서는 제직을, 왜관공장에서는 준비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염색가공은 대구의 염색가공공장(비산 염색공단내), 포장은 이현공단의 포장회사를 이용하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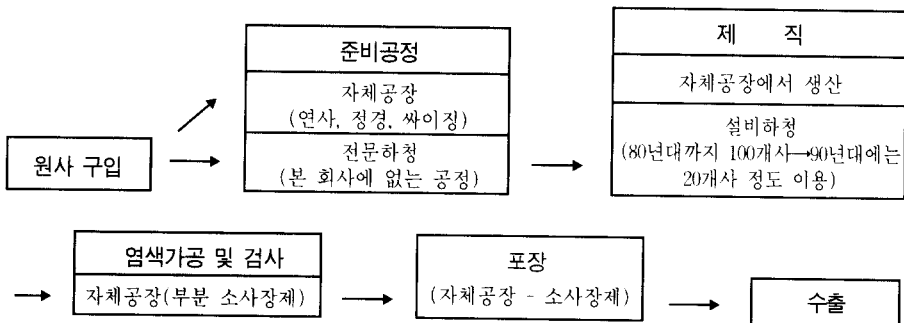


그림 4. B사의 생산체계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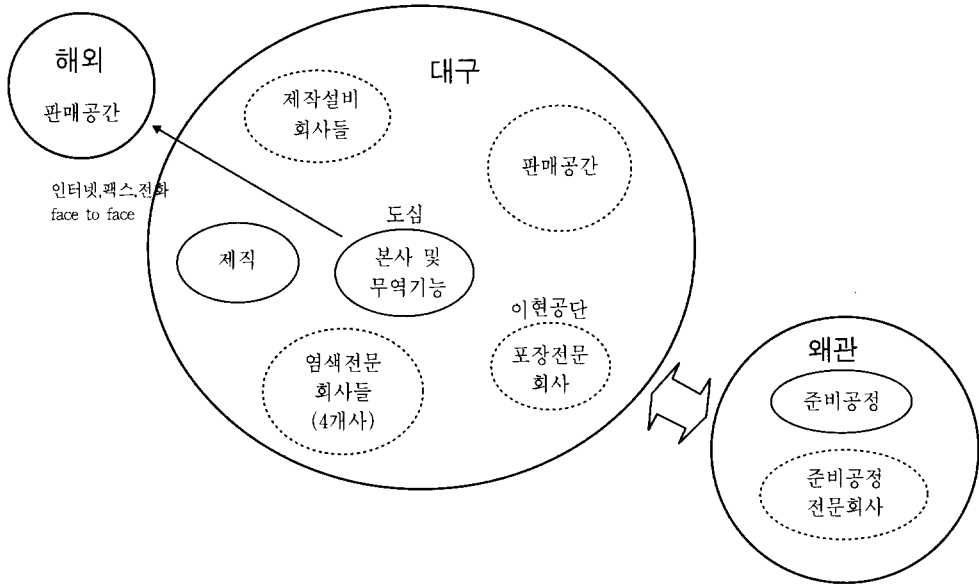


그림 5. D사 생산체계의 공간분화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4) E사(준비 + 제작 + 무역)

E사는 1960년대에 창업하여 현재 준비공정, 제작, 그리고 무역의 기능을 가지며, 생산된 제품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방식으로 전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간접수출이 중심이 되어 서울의 대기업상사들이나 중소기업 에이전트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주요시장은 선진국으로 다양한 교직물인 소로트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신기계가 도입되었고 직물디자인 개발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역시 선진제품을 모방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전략에 있어서는 1990년대 이후로는 전원 기혼여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기업은 1989년 무역업무를 시작하여 1992년 서울에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의 수출은 간접수출이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물량 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섬유무역관련 대기업상사나 에이전트들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서울에 무역기능을 입지시키고 있다.

생산기능은 대구, 왜관, 경산, 청도 등의 지역들로 다변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3공단 공장에서 준비공정(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이것의 80% 정도가⁹⁾ 왜관공장에서 준비공정(정경)을 거

쳐 대구의 3공단 공장과 이현공단공장(이상은 자체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된다. 준비공정에서도 부분적인 설비하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준비공정을 거친 원사는 경산, 청도, 대구의 하청제직업체를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제직된 생지들은 대구, 경산, 청도의 5개 염색회사에서 염색가공을 하게 된다. 이들 제작 및 염색가공 하청회사들은 당초에는 대구에 입지하였으나 대구 인근지역들로 이전한 업체로, 이전 후에도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염색가공 공정이 끝난 원단은 대구의 포장회사에서 외주를 통하여 포장되고 이는 다시 화물회사를 통하여 컨테이너 부두까지 운송된다.

그리고 서울의 무역기능과 대구의 생산기능은 연락(통신)회사를 매개로 연결되고 있다.

2) 제2 유형

(1) K사

생산기능은 없고 무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K사는 국내 5대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종합상사인 데, 섬유관련 무역을 전문으로 하고 본사는 부산에 입지하고 있다. 부산본사와 대구사무소가 섬유 무역을 담당하고¹⁰⁾ 섬유 외의 부문은 서울의 지사

가 담당하고 있다.

이 기업은 대구에서 하청생산된 섬유원단을 대량으로 직접수출하고 있는데 이중 90%가 폴리에스테르원단이고 10%는 편직원단이다. 제품들을 수출할 때도 50%는 K사 브랜드로, 나머지 50%는 해외바이어가 원하는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70년대나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완제품 하청에 의존하였으나 1990년대 대구 무역사무소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섬유생산 공정별 하청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준메이커(organize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7).

1980년대의 거대시장이던 중국, 홍콩에서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공정별 외주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런 전략은 대구 섬유산업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무역회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도시에 입지한 대구사무소는 전세계로 흩어져 있는 K사의 해외지사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제직 및 염색가공 회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제직업체들을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생지를 구매하고 염색가공과 포장은 전문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생산체계를 이용하여 소로트 생산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2) F사(준비+편직+의류+무역)와 G사(준비+편직+무역)

F사와 G사는 경편기를 이용하여 레이스원단을 생산하는 편직¹³업체들이다. 대구 섬유산업에 있어서 편직 부문은 제직부문에 비해 기업수도 훨씬 적고 내수지향적이다. 일반적으로 편직은 의복제품 제조업체처럼 노동집약적이고 초기진입이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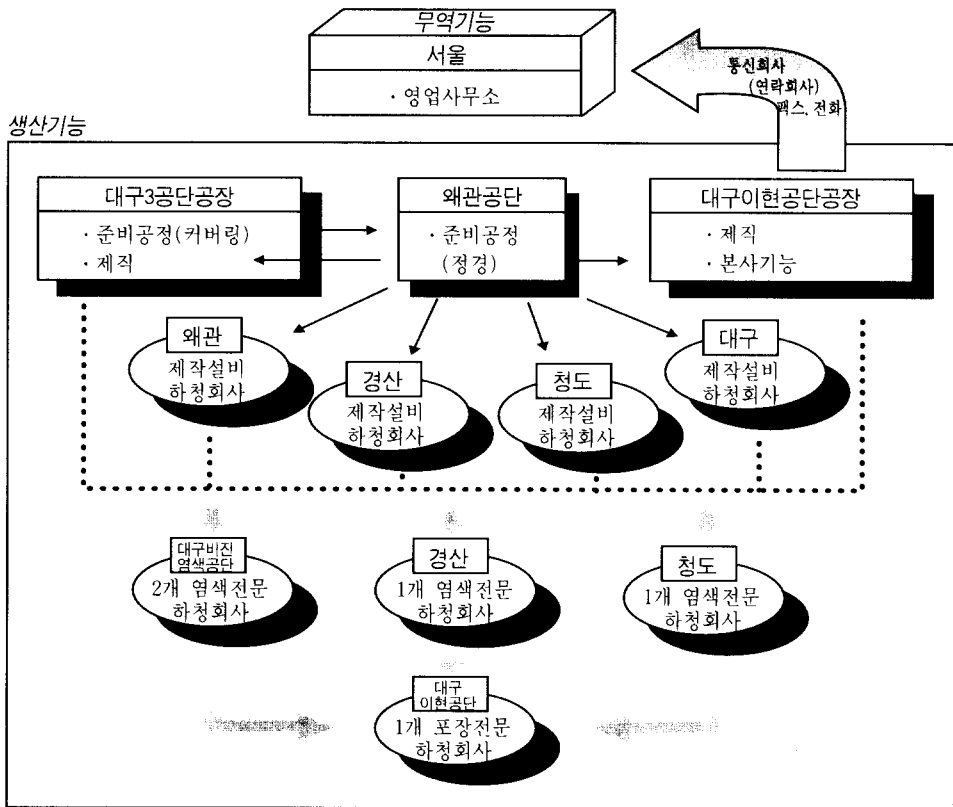


그림 6. E사의 생산체계와 공간분화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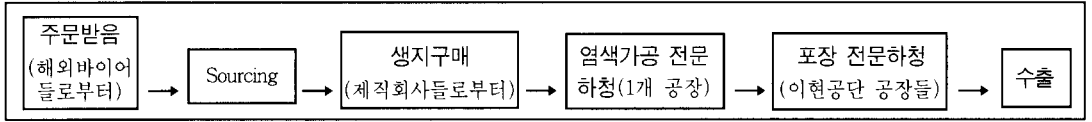


그림 7. K사의 생산체계(준메이커 역할)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두 기업은 신기술 및 디자인이나 신소재 개발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업은 모두 랏셀 레이스를 편직하는 업체들이지만 성장과정 및 경영특성은 상이하다.

우선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에서는 F사와 G사 모두 신기계 도입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F사의 경우 1994년 왜관에 제 1공장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구식기계를 매각하고 대신 독일 칼마이어사의 컴퓨터화된 고가의 편직기계를 도입하였으며, 매년 신기계나 새로운 CAD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칼마이어사의 컴퓨터화된 편직기계 8대를 보유하고 있다. G사의 경우도 1993~1996년까지 역시 칼마이어사로부터 6대의 컴퓨터화된 편직기계를 도입하였다. 두 회사 모두 매우 고가인 편직기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구식편직기는 디자인을 바꾸어 새로이 작업을 하는데 3명이 1주일을 소요해야 하는 반면 이 편직기의 경우 3분이면 충분하다.

또한 F사는 1994년 이후부터 디자인실에 1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중 7명은 디자인을, 8명은 CAD작업을 담당하는 등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는 반면 G사는 디자이너 및 CAD작업자가 5명 내외이다.

한편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전략에 있어서는 G사는 IMF를 맞으면서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것은 1993~1996년까지 고가의 컴퓨터화된 자동편직기계를 도입할 때 외화대출(연리 5.5%로 매우 저렴하였고 이 때는 환율이 900원 정도였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97년말 IMF가 시작되면서 환율상승으로 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G사는 1998년 추석 이후부터 70명의 종업원 중 40명을 감축하였고 수량적 유연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였다. 또한 부분조업을 실시해서 2주일은 작업하고 1주일은 쉬는 작업방식을 택하였으나 임시직 또는 해외노동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1999년 3월부터 성과급제도를 통하여 노동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F사의 생산체계상의 특성과 공간분화를 살펴보면(그림 8), 준비공정 부문 및 가연사 부문은 왜관에서 이루어지고, 편직은 왜관 1, 2공장과 대구의 성서공장에서 이루어진다. 내수인 경우에는 편직물을 서울의 구매자들이 지정해준 염색가공회사들로 운반을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해외수출이나 의류생산의 경우, 염색가공은 대구의 비산염색공단이나 서울에서 전문하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염색가공지는 다시 대구의 포장회사로 이동하게 되고 의류생산의 경우에는 왜관으로 옮겨져 재단 및 봉제, 포장작업까지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왜관, 대구, 서울이라는 다양한 입지이점을 이용하고 있다. 또 본사 및 무역기능은 1994년 왜관공장 설립 이전에는 대구 성서공장에서 담당하였으나 1994년 왜관공장 설립 이후 왜관 제1공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레이스원단만을 생산하는 G사의 생산체계는 보다 단순하다(그림 9). G사는 원사가 아닌 연사, 가연사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염색가공과 포장공정은 전문하청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G사의 제품생산은 대구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제3 유형

(1) C사(준비공정 + 편직 + 염색 + 의류 + 무역)

C사는 편직과 염색가공, 무역기능을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1966년에 내의류(런닝셔츠와 동복 내의)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1979년까지 준비공정,

표 1. F사와 G사의 성장과정 및 경영특성

	F사	G사
역사	1984년 대구성서공단 F섬유 설립 1992년 무역업무 시작 1994년 왜관공단 (주)F 설립(1공장) 1996년 (주)F 2공장 설립 1998년 왜관공단 1공장 2층에 F어패럴 설립 (레이스 의류) 2000년 F니트 설립예정(니트의류)	1978년 동구 효목동 G섬유공업사 설립 1981년 망장갑 제조기술 특허 획득 1981년 이음매 없는 망장갑으로 실용신안 획득 1987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아 개소함 1988년 G섬유(주)로 법인 전환 1996년 달서구 월성동으로 이전
생산기능의 통합특성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생산품목의 변화	1984년~현재 : 랫셀레이스 + 1998년~ : 랫셀레이스의류 (전량 일본에 수출)	1970년대 후반 : 펜터 스타킹 1980년대 초반~후반 : 망사장갑(프랑스로 전량 수출) 1980년대 후반~현재 : 랫셀레이스(+망사장갑, 망스타킹, 커튼도 생산)
종업원수의 변화	130명 (3개공장 모두 포함) 생산직 : 50%(65명 정도) 관리직 : 50%(디자이너, 캐드작업자 15명, 관리직 50명)	IMF 이전 70명 → IMF 이후 30명 (관리직 10명 미만은 변함이 없고 생산직을 60명에서 25명내외로 감축함)
판매시장	국내판매 : 70%(생지상태로) 해외수출 : 30%(직수출 : 21%, 간접수출 : 9%) - 염색가공지 ※ 의류는 100% 일본에 직수출	국내판매 : 75%(생지상태로) 해외수출 : 25%(직수출 : 12.5%, 간접수출 : 12.5%)
영업전략 특성	LA지사와 뉴욕지사 설립 완성단계 현재도 해외로 바이어들을 직접 찾아다님 적극적인 영업전략 추구	국내전시회 참여, 수출상담창구 활용, 무역홍보잡지 광고 등 간접적인 영업전략 추구 소극적인 영업전략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및 각 회사의 홈페이지 자료

편직, 염색, 의류, 무역기능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198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1994년에는 중국 청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국내의 섬유대기업들이 행하는 유연화 전략인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과 생산공간의 세계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횡평기를 자동기계로 대체하였고 1984년에는 자동재단기로 대체하여 20명이 하던 작업을 1명이 기계 1대를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3층건물의 공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3층에서는 디자인, 패턴제작, 재단을 담당하고, 2층 봉제실에서 봉제, 검사, 다림질, 검사, 날개 포장과정을 거쳐 1층에서 포장되어 출고지끼리 분류, 보관하는 것으로 작업을 끝나게 하고 있다.

이 기업은 해외의 전시회나 일본의 구매회사들로부터 신소재나 색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섬유관련 연구소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품질고급화를 지향하고, 삼성, 코오롱 등의 대규모 스포츠웨어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결제과정을 비롯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고, 전체공정을 내부화시킴으로써 상품기획에서 제품생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중국 청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대구에서 원사를 구매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 보내면 그 곳에서 준비공정, 편직, 염색, 봉제, 포장공정을 거쳐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중저품질의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수출하고 국내 생산공간에서는 고급품을 생산하는 이원적인 전략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생산 모두 고급의류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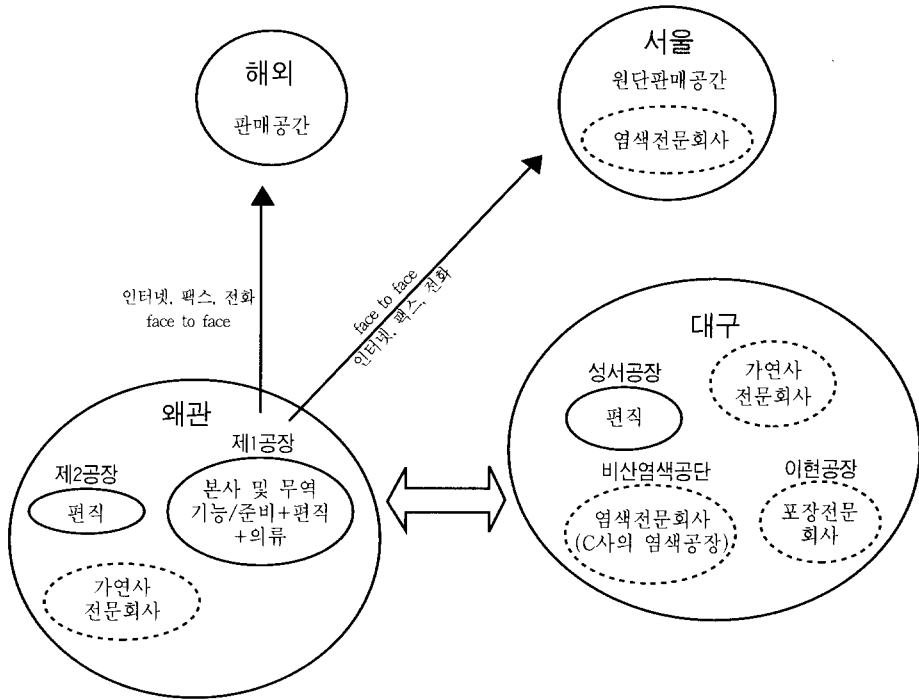


그림 8. F사 생산체계의 공간분화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또 중국 현지법인에서 어느 정도 숙련된 기능공으로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 수는 현재 40명에 달하고 있다. 즉 1990년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공간을 해외로 확대하고 해외의 숙련노동자들을 다시 국내로 공급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공간이용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내에서의 생산은 외부화시킨 공정도 없고 외주를 통한 생산도 전혀 없는¹²⁾ 대신 전체공정이 한 장소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트를 편직하고 염색가공하는 것은 비산염색공단내

에 있는 2개 공장에서, 재단·자수(브랜드 로고 자수)·봉제·포장은 이현공단의 본사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재단후의 공정은 비산염색공장에서 그리고 봉제공정은 다시 이현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H사(염색가공)와 I사(염색가공)

H사와 I사는 염색가공 전문업체로, H사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대량으로 염색하는 회사로서 1990년대 중반들어 폴리에스테르 교직물 염색을 겸하고 있다. 반면에 I사는 현재 폴리에스테르 교직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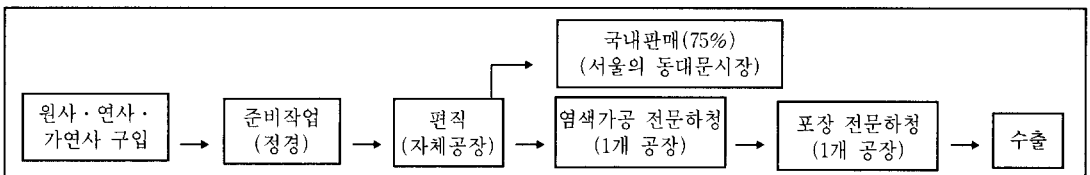


그림 9. G사의 생산체계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염색업체이다.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인 염색가공 부문은 제직이나 의류보다는 초기 진입이 어렵다¹³⁾

당초 폴리에스텔 전문 염색가공업체였던 H사는 1990년대 후반에 거래하던 제직회사들의 요구로 폴리에스텔 교직물 염색도 겸하게 되었다. 염색가공 단일기능만을 담당하는 업체로 외부화 공정은 없다. 따라서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전략과 부분적인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우선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전략으로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특히, IMF사태 이후 종업원수를 215명에서 95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작업시간을 8시간(3교대)에서 12시간(2교대)으로 늘렸다. 생산직 여성노동력은 모두 기혼 여성이었고 1995년부터 해외노동자를 2~3명 고용하여 왔다.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대구 섬유산업이 폴리에스텔 일변도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교직물 생산으로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품종 소로트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H사도 이에 따라 1997년 소량으로 염색가공할 수 있는 시염기를 2대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시염기

를 통한 염색가공 주문이 대량염색가공 주문을 증가하고 있다.

폴리에스텔 교직물 염색가공 전문회사인 J사는 1972년 설립되어 1989년까지는 나일론 원단의 염색가공을, 1989~1995년까지는 면직물 원단의 염색가공을, 1995년 이후에는 폴리에스텔 교직물 염색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은 신기계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칼라 측색기인 CCM기가 1994년에 도입되었고 1997년에는 염료의 정확한 양을 평량해주고 적절한 온도와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자동포획장치가 도입되었다.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전략을 보면 작업시간을 12시간 2교대로 하여 최소한의 노동력을 보유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여성 노동력은 전원 기혼여성이며 해외노동력 이용은 1997년 1년 동안 이루어졌으나, IMF사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J사 (제직)

제직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J사는 1992년 섬유기계회사에 근무하던 경영자가 창업한 업체로, 의류용 교직물과 커튼지의 하청생산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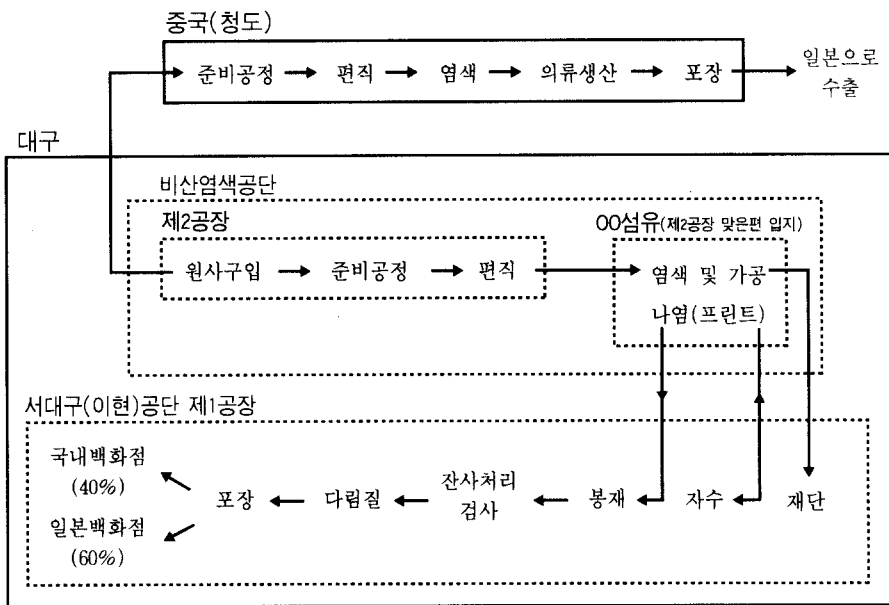


그림 10. C사의 생산체계와 공간분화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J사의 원단 생산과정은 디자인과 준비공정을 거친 원사를 원청회사로부터 공급받아서 통경을 거쳐 제직하는 것이다. 제직된 생지는 원청회사나 원청회사와 계약을 맺은 염색가공회사에서 운반해간다. 이렇게 직물 디자인, 원료, 운송은 모두 원청회사에서 담당하므로 J사는 순수하게 제직공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제직과정 중 통경은 다른 사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주를 주고 있다.

섬유산업 공정 중에서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인 제직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은 유연화 전략도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 J사는 신기계도입 및 연구개발 전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총 종사자는 경영자와 경영자의 아내를 포함하여 9명이고 자가용으로 종업원들을 출퇴근시켜 주고 있다. 그 중에서 기혼여성노동력은 6명이다. 원청회사들은 설립 초기에는 2개업체였으나 현재는 20~30개 업체들로 원청회사에 대한 종속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기업들의 생산체계의 유연화 전략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대구 섬유업체들은 다양한 유연화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무역기능을 가진 업체가 역내 각 부문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단위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를 조직함으로써 네트워크 생산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산기술의 유연화전략과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전략보다는 기업간 관계의 유연화 전략이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에 보다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기업들의 기업간 관계의 유연화 전략에 의해 재조직되어지는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를 제시한 것이 그림 11이다.

그림 11은 사례기업들 중 공간분화의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일 부문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공간분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업내에서 모든 공정을 통합하지 못하거나 외부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공

간분화도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의 기업들의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 현상이 현저하다. 동일 유형의 공간분화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공정을 통합하여 대량생산, 대량수출체를 유지하고 있는 A, B, K사의 경우 1990년대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에 적응하는 한 과정에서 더 이상 공정을 통합하지 않고 대구 지역의 다양한 섬유기업들의 전문화청을 통해 공정을 외부화함으로써 공간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인 A, B, K사는 대구내에서만 생산기능의 공간분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중규모 기업인 D, E, F사 같은 경우에는 경북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설립역사가 보다 오래된 A, B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을 이전할 당시에는 지가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또한 이 기업들은 모든 생산공정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공장부지를 확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보다 자본이 적은 D, E, F사는 1990년대에 이미 대구시내의 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구보다 지가가 낮은 인접지역(왜관)에 생산기능을 분화시키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생산부문의 공간분화는 부문별로 차이가 있는데 원사생산 임지는 비용보다는 동일업종의 집적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의류 부문은 노동력 지향성이 강하다. 그리고 염색가공 부문과 포장부문은 공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제직과 염색 부문은 생산체계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편직과 의류부문에서는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없다. 무역기능의 임지는 직접수출을 지향하는가, 간접수출을 지향하는가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로 결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섬유기업들의 재구조화는 주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도입은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규모기업이 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현재 대구 섬유기업들의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혼재하고 있다. 또한 대구 섬유기업들의 1990년대의 유연화 전략으로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누적되어 온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체계는 더욱 복잡·다양화되었으며, 공간이용전략도 더욱 적극적이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표 2. 유형별 기업의 생산체계의 유연화 전략

		생산체계의 유연화		
		생산기술	노동력이용	기업간관계
제 1 유형	A사	신기계도입 / 사무자동화 소품종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고용자 감소 기혼여성 노동력 이용	전문하청(준비공정, 염색가공부문) 및 설비하청(준비공정, 제직, 염색가공부문)
	B사	신기계도입(조금 뒤짐) 자동화 및 정보화 소품종 대량생산	고용자 감소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소사장제 실시 성과급제도 실시	전문하청(준비공정) 및 설비하청(제직) 이용 염색가공부문에서는 반대로 전문하청회사의 역할을 함
	D사	신기계도입 소품종 대량생산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전문하청(준비공정, 염색가공, 포장부문) 및 설비하청(제직) 이용
	E사	신기계도입 다품종 소량생산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전문하청(염색가공, 포장부문) 및 설비하청 (제직) 이용
제 2 유형	K사	×	×	전문하청(염색가공, 포장부문, 제직부문 - 단, 원사는 공급하지 않음)
	F사	신기계 및 신기술도입 / 디자인개발 다품종 소량생산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전문하청(준비공정, 염색가공, 포장부문) 이용
	G사	신기계도입	고용자 감소/ 부분조업/ 성과급제 실시	전문하청(염색가공, 포장부문) 이용
제 3 유형	C사	신기계도입 / 의류생산공정기술 개발 / 고품질 의류 수출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해외 노동자 이용	염색가공부문에서 전문하청회사의 역할을 행함
	H사	신기계도입 소품종 대량생산+다품종 소량생산	고용자 감소 해외노동자 이용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염색가공 전문하청회사의 역할을 함
	I사	신기계도입 소품종 대량생산+다품종 소량생산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염색가공 전문하청회사의 역할을 함
	J사	다품종 소량생산	기혼여성 노동자 이용	제직 전문하청회사의 역할을 함

자료: 인터뷰조사 결과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의 개별 섬유기업들의 유연화전략과 그로 인한 대구 섬유기업들의 복잡한 생산체계와 공간분화를 분석함으로써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하였다.

대구 섬유기업들은 무역기능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파워를 가지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고 있다. 물론 원사 생산업체도 파워를 가지고 있으나 원사생산은 고도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이므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대부분의 대구섬유회사들은 무역기능 보유쪽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섬유기업들은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단일공정만을 담당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대구 섬유생산체

계는 이렇게 다양한 섬유업체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한 기업들조차도 외주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 설비하청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전문하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에서는 염색가공부문을 보유하지 못한 중규모 기업들이 네트워크 생산체계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준비공정 및 제직, 염색가공, 포장회사들을 필요에 따라 전문하청, 설비하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는 섬유산업의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한 생산단위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섬유기업들이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를 조직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체계는 최근 들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대량생산, 대량수출시기인 1970년대에 이미 그 기반이 형성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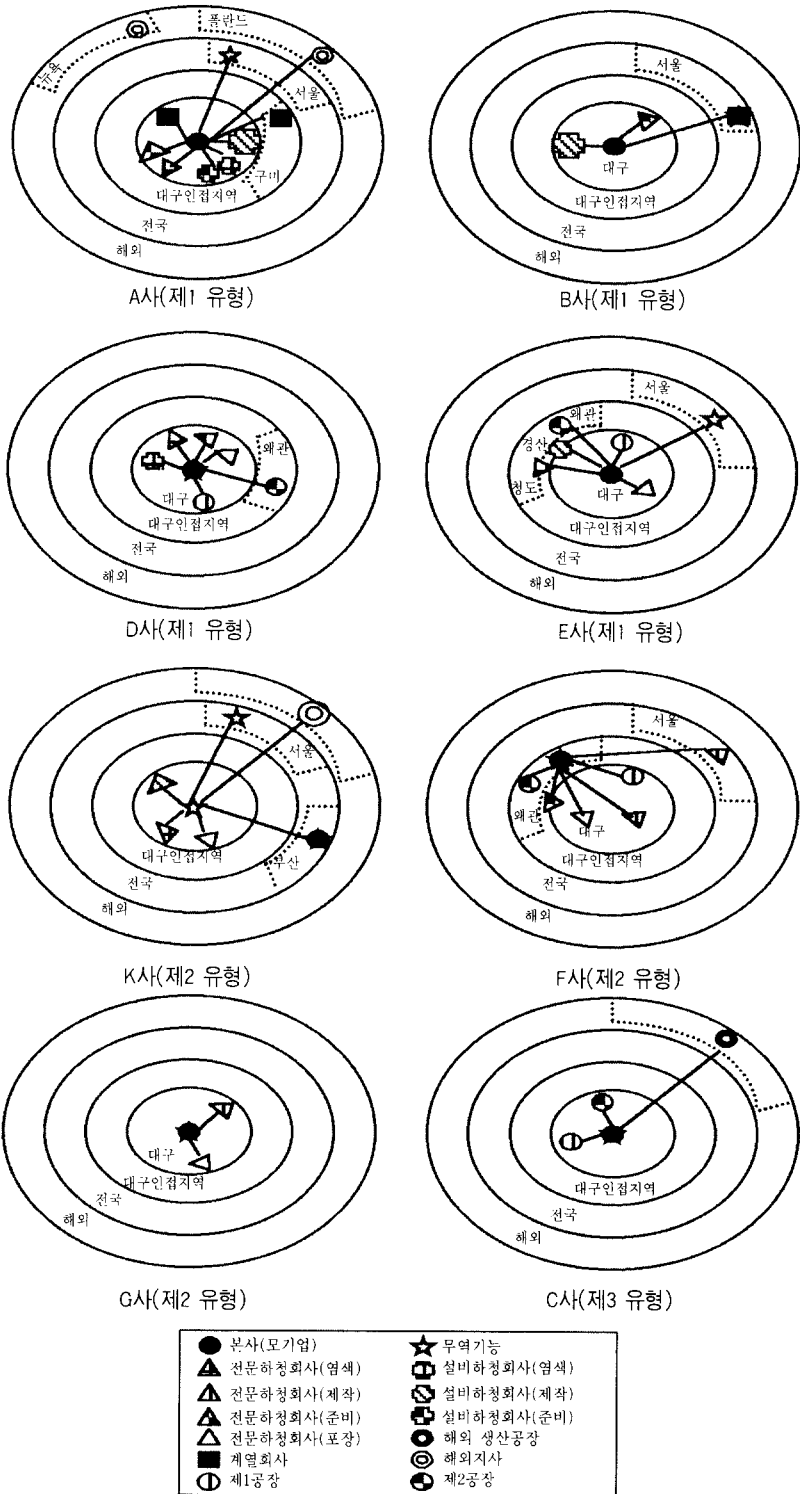


그림 11. 유형별 사례기업의 생산체계의 공간분화

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에는 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다 많은 섬유회사들과 많은 염색 가공 및 제직회사들은 종속보다는 보다 더 느슨한 관계맺음을 통하여 훨씬 더 복잡한 생산체계가 이루어졌다.

사례 기업들의 외부화의 정도에 따른 각 유형별 개별기업들을 조사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에 속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규모가 비슷하여도 유연화 전략상의 차별성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공간분화 특성도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업내의 외부화의 정도와 기업의 규모가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중요한 요소이고, 무역기능의 입지는 수출방식과 기업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대량생산, 대량수출을 특징으로 하던 대구 섬유기업들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대구 섬유산업의 성격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은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註

- 1) 본 연구와 같이 개별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대구 섬유산업의 위기 및 재구조화는 대구라는 특정 영역내에서의 섬유산업이라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만 재구조화가 아니고 세계 및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섬유산업의 위기 및 재구조화와 긴밀히 연관되어지므로 이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구 섬유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위, 경제적·역사적 변화과정, 유연화 전략 및 공간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상의 과제는 이철우·박양춘·박규택(1999)의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 2) 준비공정에는 커버링(성질이 다른 폴리에스테르사와 나일론사 그리고 폴리에스테르사와 면사를 하나는 심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커버사로 하여 1가닥으로 꼬는 것), 연사(1올 또는 2올 이

상의 실에 꼬임을 가한 것), 싸이징(제직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실에 풀을 먹이는 것), 정경(소정 올 수의 경사를 길이 및 장력을 균일하게 소정의 나비가 되도록 배열하여 드림 또는 빔에 감는 작업) 등이 있다.

- 3) 생산기술의 유연화 전략에는 신기술과 신기계의 도입, 연구개발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수요와 그 수요의 시간적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는 크게 기능적 유연화와 수량적 유연화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적 유연화는 수요, 기술 및 판매정책의 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과업을 조정하는 기업전략으로서 노동자 재교육, 생산범위의 확대 등 노동자의 다기능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된다. 수량적 유연화는 수요의 유동에 따라 기업이 고용된 노동자수와 총임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용이함과 속도를 의미하는데 임시직 및 시간제 고용의 확산 또는 해외노동자의 고용 등을 포함한다. 공간이용의 유연화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개방화의 증대로 인해 기업의 생산공정은 각 단계별로 분리되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 전 세계적으로 분산입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간 관계의 유연화는 포드주의 시절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능들을 내부적으로 통합 수행 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핵심기술이나 기능만을 내부화하고 나머지는 외부화하여 비용절감과 수요변동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한상진, 1994; 강현수, 1995).
- 4) 1980년대 워트제트룸 600대를 도입하여, 1998~1999년 워트제트룸 496대 매각 및 폐기하고, 래피어직기 60대를 도입하였다. 1999년 12월에 에어제트룸 3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 5) 해외노동자는 중소기업에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은 해외 노동자를 이용할 수 없다.
- 6) 통경은 도안에 제시된 직물 디자인을 보고 그 대로 직물을 짜기 위해 실을 한올 한올 배치하는 숙련작업을 말하는데 보통 2명이 1팀이 되어 작업한다. 이것은 한 생산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를 가동하려면 제일 먼저 해주어야

할 작업이지만 일단 한번만 해주면 다른 품목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할 일이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으로는 회사에 그 직원을 두기보다는 외부화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7) 현장에서는 '통신회사'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각 섬유기업이 서울의 회사들에게 보내는 샘플이나 문서들을 수거하여 당일로 서울에 배달해주는 회사를 말하며 서울과의 관계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통신회사들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은 없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기업은 없다. 따라서 이 연락기능은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8) 전자적 자원관리(ERP): 오더수주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무역, 영업, 회계, 인사, 급여, 생산관리, 원가, 자재 등의 모든 업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자 문서 교환(EDI) : 전자메시지에 의해서 주문과 적하명세서(送狀)와 같은 문서식 거래서류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섬유회사의 경우는 LC에서 네고에 이르기까지 은행, 관세청, 직물조합, 회사를 하나로 연결하여 전자화시키는 작업을 말하는데 관세환급은 현재 EDI로 하고 있으나 네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9) 나머지 20%는 3공단 공장에서 「위사」용으로 사용된다.
- 10) 대구의 무역사무소와 부산의 본사가 섬유무역은 담당하고 있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부산 본사에서는 신합섬원단, 인공피혁, 부직포 등 주로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용 원단을 2개의 자체 생산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반면에 대구의 무역사무소는 생산시설은 보유하지 않고 대구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특히 제직원단)의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1) 편직의 종류로는 경편(망사, 레이스생산), 위편(스웨터 생산), 횡편(둥글게 통으로 짜는 방법)으로서 현장에서는 다이마루라고 불림), 자수 등이 있는데 F사와 G사는 랫셀레이스를 생산하는 경편업체들이다.
- 12) 편직부문은 대량생산, 대량수출 체제가 아니므로 설비하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직전문회사들

이 제직업체만큼 많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문하청의 여지도 별로 없다.

- 13) 염색가공부문은 또한 작업이 위험하고 힘들면서도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제직 부분이 기계 15대를 2명이 관리하여 6~7명이 3교대로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염색가공부문은 최소 80명 정도가 2교대로 24시간 일하고 있는 형편이다(인터뷰조사 결과).

文 獻

- 강현수, 1995, 유연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서울 의류산업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태경, 1992,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발달과 공간구조의 변화," 지리학, 27(3), 232-242.
- 김덕현, 1992,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간구조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배, 1988, "한국섬유공업의 기술변화와 입지에 관한 연구," 지리학, 38, 37-59.
- 김왕배, 1992, 한국의 자본축적과 지역의 구조화-기업조직의 공간분화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삼욱,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29(2), 117-136.
- 박삼욱 · 주성재 · 남기범 · 황주성 편역, 1998,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서울.
- 서찬기, 1998, "전환기의 경제지리학," 지리교육, 10, 1-121.
- 이영희, 1994,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한울, 서울.
- 이정협, 1993, "서울시 의류업체의 하청생산의 강화에 따른 입지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지리학논집, 21, 35-51.
- 이철우 · 박양춘 · 박규택, 1999,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4(2), 155-175.
- 조명래, 1992, "자본의 재구조화와 지역불균형의 재생산,"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국공간환경

- 경의 재인식. 한울, 서울.
- 초의수, 1993,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와 지역구조의 변화.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병두,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29(2), 137-165.
- 한상진, 1994, 1980년대 이후 수도권지역의 산업재구조화 기업전략과 지방노동시장의 변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Amin, A.(ed.), 1994, *Post-Fordism: a Reader*, Blackwell, Oxford.
- Cho, M. R., 1997, Large-small firm networks: a foundation of the new globalizing economy in South Korea, *Environment & Planning A*, 29(6), 1091-1029.
- Dicken, P., 1998, *Global Shift: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3rd ed.), Paul Chapman Publishing, London.
- Hardill, I., 1990, The recent restructuring in the British Wool Textile Industry, *Geography*, 75(328), 203-211.
- Harrison, B., 1994, Large firm-centred networked production systems in Japan and Europe, *Lean and Mean: The changing landscapes of corporate power in the age of flexibility*, Basic Books, New York.
- Harvey, 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Oxford(구동희 · 박영민 역, 1997,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서울).
- Healey, M. J. and Ilbery, B. M., 1990, *Location and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Lovering, J., 1989, The Restructuring Debate, in Peet, R., & Thrift, N.(eds.), *New Models in Geography*, 1, Unwin Hyman, London.
- Malecki, E. J. and Tootle, D. M., 1996, The role of networks in small firm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11(2), 43-57.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Macmillan, London.
- Park, S. O., 1993,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 Planning A*, 25, 81-93.
- Park, S. O. and Markusen, A., 1994, Generalizing new industrial districts: a theoretical agenda and an application from a non-Western economy, *Environment & Planning A*, 26, 81-104.
- Scott, A. J., 1988, *Metropolis: From the division of labour to urban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